



육계산업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국내외 전문가 초빙, 실질적인 산업발전에 기여

— 2월 18일, 본회와 한국가금학회 공동으로 —

본회는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와 공동으로 육계산업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한 심포지움을 오는 2월 18일(화)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사료협회, 미국대두협회(ASA), 한풍산업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육계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개최되는데 강사로는 국내외 학자 및 계열주체 대표가 초빙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주제 발표에 이어 각 문제별로 충분한 토의시간을 가져 실질적인 업계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 실무자를 질의자로 선정하였다.

유료로 개최되는 육계산업심포지움은 회원 1만원, 비회원 5천원의 참가자회비를 징수한다. 육계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본 심포지움에 전국 육계업자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

심포지움 일정 및 발표자, 질의자는 다음과 같다.

심포지움 일정

09:30~10:00 등록

10:00~10:30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오봉국 교수(서울대)

10:30~12:30 좌장: 오세정 교수(전국대)

• 미국에 있어서 브로일러 생산기술체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표: Thompson 박사(미국 브로일러전문가)

질의: 강창원(푸리나), 김영옥(제일사료), 장민기(버들농장)

12:30~13:30 중식

13:30~15:00 좌장: 박영인 회장(미사료곡물협회)

• 육계의 가공유통에 있어서 문제점과 발전전략

발표: 이계조(천호그룹 회장)

질의: 허신행(농경연), 신정일(구량식량), 이무하(KAIST)

15:00~17:40 좌장: 이창구 소장(한국바이오텔화학)

• 일본에 있어서 브로일러 생산관리상의 위생문제와 대책

발표: 세끼(일본 다무라제약 기술 고문)

• 한국의 육계질병 발생상황과 대책

발표: 김선중(서울대)

• 질병위생분야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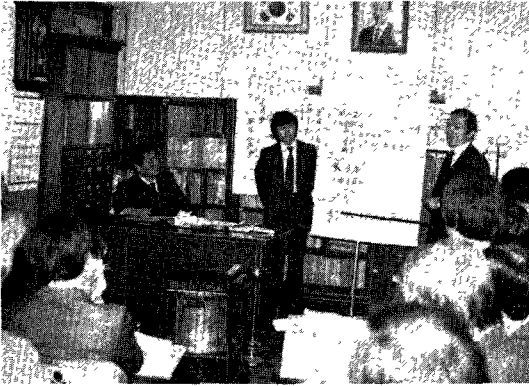
질의: 이영옥(가축위생연구소), 오경록(천호),

최재준(엘랑코)

17:40~18:00 종합발표

양계산물소비홍보 자문 및 협의회 전양계관련업계 사업필요성 절감

— 1월 10일 본회의의실 26명 참석 —



△양계산업 안정의 열망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는 소비홍보자문 및 협의위원회

본회가 '86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자조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제 1회 양계산물소비홍보 자문 및 협의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0일(금) 오후 4시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업계와 관련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본회에서 위촉한 협의위원과 자문위원 연석회의로 30여명이 참석하여 홍보사업에 대한 양계산업,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부화·채란·육계 등 양계업계뿐만 아니라 도계, 사료, 약품업계, 조합, 단체, 학계, 연구계 등 전업계가 혼연일치가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발전적인 의견을 취합해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회는 과거 60년대부터 축산업을 주도해 온 양계산업이 최근 80년대에 이르러 그 성장속도가 타 축산업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됨에 따라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능동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시

산업의 안정화를 속히 이루기 위해 양계산물 소비 확대, 생산자 의식 제고로 국제경쟁력 강화, 대중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요리법 개발, 궁극적으로 양계농가 소득증대와 관련업계 사업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양계업계와 관련업 전체가 하나로 합일점을 구성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본회 임원들이 적극 앞장서서 홍보기금을 각출하고 각 업계별로 분담금을 설정해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양계산물홍보사업은 본회 특별회계로 편성해 찬조금을 모아 잡지, 신문, 지하도홍보판,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과 소비자교육, 요식업종사자교육, 요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추진은 소비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명단 참조)



△ 회의후 회장단이 마련한 신년인사회는 양계업계 원로 자문위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사진은 기념케이크를 자르는 박도현 이창열, 이상운 회장)

한편 이날 소비홍보 자문 및 협의회에서는 △업계별 협찬금 재조정 △양계인 우선 주도 착수(양계업자 분담금 기준치 설정) △각 유관업계 적극 협조 △양계산업안정화를 목표로 사업추진 △생산자 조절 홍보사업 병행추진 △생산자 의식개혁사업으

● 대한양계협회 소식

로 능동 참여 유도 △양계산물가공품 개발선진 △찬조협찬금 세무상 손비처리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을 광범위하게 교환한 바 있다.

회의가 끝난후 본회 회장단에서 마련한 양계인 신년 인사회에 전원이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양계산물 홍보사업 자문 및 협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문위원(12명)

오봉국, 오세정, 박근식, 마영호, 정태원, 이계조, 차두홍, 이오직, 김길원, 박영인, 이경원, 김중곤

● 협의위원(28명)

이상윤, 신홍종, 박준영, 고태영, 이한주, 안명수, 조동필, 김성봉, 이진남, 김기석, 강성배, 이철용, 권 배, 이희구, 이영돌, 류종래, 한인석, 차상진, 이계욱, 최병현, 한 순, 김 현, 심준식, 장민기, 강희구, 임용택, 이진대, 김용철(무순)

'86 1차 이사회 개최 예정

2월 14일 오후 2시

— 오후 1시에는 각도지부장 회의 —

본회 86년도 제1차 이사회가 오는 2월 14일 (금)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 신가입 및 제명 △정관 및 규정 일부 수정 △8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예산집행 심의 △'8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86년도 정기총회 준비 △기타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사회에 앞서 본회 각도지부장 회의가 오후 1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1986년도 정기총회 개최

—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

본회는 1986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오는 2월 20일(목)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남대문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85년도 본회 사업실적 및 수지

예산집행 심의, '8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임원개선, 정관일부 수정, 기타사항 등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부당 서울인상 꺾기대회

— 전남지부 정기총회 개최, 250명 참석 —



85년도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 정기총회가 지부회원, 유관기관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5일 오전 11시 카톨릭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부의안건 심의에서는 85년도 사업실적보고, 예산집행 결산서 심의 후, 8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전남지부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준 김정수씨(해표사료 광주영업소장), 진병수씨(상인), 박근태씨(상인), 봉필수씨(회원), 오종학씨(회원)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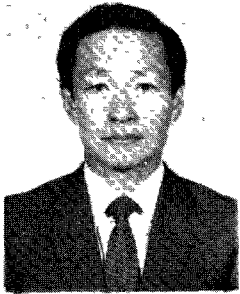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양계농가에 대해 당국에서 적용한 세율 11%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원인규명을 위한 꺾기대회를 열었다. 또한 결의내용은 국제청, 농수산부에 발송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본회 자체감사 수검

본회는 1985 회계년도 주요 사업실시 및 수지예산 결산에 대한 자체감사를 1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수검하였다.

경북지부장에 조동필씨

본회 경북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축협회의실에서 개최한 경북지부총회에서 한성농장(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동 산1번지 소재) 대표 조동필씨를 지부장에 선출했다.



(조동필 신임
경북지부장)

1월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 1월 편집위원회가 1월 17일(금) 오후 4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간양계 1월호(통권 195호) 검토와 2월호 편집계획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특히 최근 만연되고 있는 전염성 양계질병에 대한 문제점 논의와 사료수급문제, 우유체화, 비육우 문제 등 관련 축산업계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원용 '86카렌다 수첩제작

— 본회 회원에게 무료 배포 —

새해를 맞아 본회는 '86카렌다 수첩을 제작하여 전국 회원들에게 무료로 증정하였다.

협회 회원들의 양계장, 사무실에서 경영일지와 각종 비망록으로 활용될 카렌다수첩은 고창양계, 한국바이엘화학, 덕수가축, (주)동방, 흥성사료, 과학축산, 대한특수기계, 대군통상 등의 협찬으로 제작되었다.

본회는 앞으로도 전국 회원들을 위한 회원용 각종 정보유인물 등을 계속 제작하여 송부할 예정이다.

미국 채란양계업계 시찰단 모집

— 6월 중순경 출국예정 —

채란양계산업의 안정발전을 위한 선진 양계산업 시찰단을 오는 6월 중순경 파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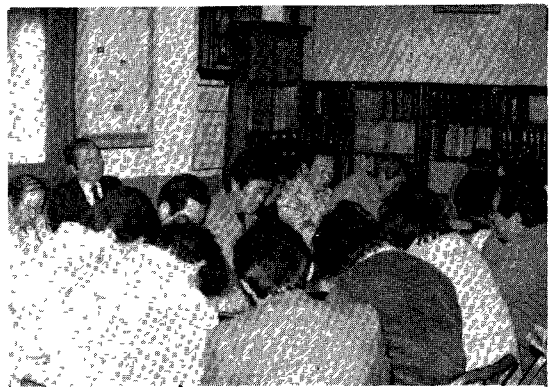
미국의 시범채란농장을 돌아보며 자동시설, 계분 제거, GP 처리, 계란의 계열화생산을 집중 연구하고 계란의 유통·가공·판매에 대한 견학을 목적으로 미국 채란양계산업 시찰단을(시찰단 규모 약 15명, 선착순 마감 예정) 구성키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 중에 있는 바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바란다.

기간은 약 2주 정도로 미국 전역을 돌며 주로 채란양계업계를 견학하는 이번 시찰단의 미국내 안내는 미농무성측에서 담당하며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협조할 예정이다.

비용 및 정확한 일정은 추후 결정되는대로 통보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분은 본회 편집국(778-8103~4)으로 문의 바란다.

신청은 오는 3월 15일(토)까지이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지난 1월 27일(월)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회의가 개최되었다.

먼저 지역별 정보교환 및 전망검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육계가격은 kg당 하이가 850~900원, 세미가 830~9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추

세고, 추대는 240~280 원으로 약세를 유지하면서 일부 소규모 부화장에서 160~200 원까지 덤핑병 아리가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병아리 시세가 장기간 호경기를 이루면서 병아리 물량이 증가하면서 3~4월에 닭고기의 비수기를 맞아 입추가 다소 부진한 편이다. 출하물량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소비가 위축되어 출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구정을 전후한 소비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경기도 일원에 약간의 질병이 발생하여 일찍 출하될 것을 예상하면 가격이 약간 상승할 것이며, 그 이후 3~4월은 비수기로서 가격이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부 사료과 품질담당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름철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저질의 우지를 사용한 배합사료로 닭고기에 대한 육질의 저하와 냄새로 인하여 소비위축되고 있는 문제는 올해부터는 우지의 품질검사의 제도화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86년도 옥수수 도입물량을 제한한다는 문제에서는 생산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축협사료의 질이 왜 낮은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실제로 축협의 기술축적이 일반 사료회사보다 한단계 아래에 있으며, 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양계사료와 젖소사료에서 더욱더 질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그리고 축협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축가 모두가 축협에 압력을 가하는 것만이 축협사료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본회와 한국가금학회가 공동 주최로 86년 2월 18일 10:00~18:30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남대문 옆)에서 육계산업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니 많은 참석 바란다. 점심은 주최측에서 제공.

1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1월 29일 본회 회의실 —

1월 채란분과위원회가 1월 29일(수) 오후 2시



△ 1월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채란분과위원회 회의의 광경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황인옥 전무는 협회 업무보고에서 소비홍보사업, 방역질병문제, 추백리문제, 미국 채란업계 시찰단 구성, 계란 선물박스 제작, 계란 생산성제고, 양계산물 상품성향상, 계란 GP 센타 건립, 본회 이사회, '86정기 대의원 총회 등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계속된 안전토의에서는 △최근 난가동향 △계란유통규격 △(국내외) 선진지시찰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난가동향은 최근 계속된 강추위 영향으로 시중 소비가 뜸해져 농장에서는 계란의 체화현상이 있으며, 구정 성수기를 앞두고 일시에 많은 계란이 쏟아져나와 구정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환우계에서 알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구정 이후에도 희망적인 기미는 없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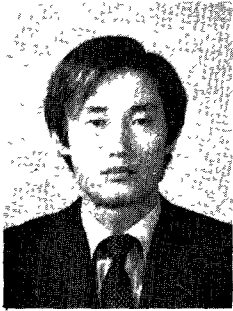
계란가격 고시에 대해 양축업자 대부분이 고시에 준해서 계란을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가 어두운 취약지구나 소군업자들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생산자의 단합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계란유통규격 조정은 대부분의 양축가들이 현행 제도의 고집을 주장하고 점차적으로 중량별 유통 제도로 전환시키자는 뜻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기타 사항으로 세무문제, 계란수송차, ILT 방역, 추백리방역, 미군계란군납, 양계인 단합대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신흥종 부회장 새마을훈장 노력장
장민기 이사 농수산부장관 표창

— '85 복합영농 축산진흥유공자로 —



(신흥종 부회장)



(장민기 이사)

'85 복합영농 축산진흥 유공자표창자로 본회 신흥종 부회장(고창양계 대표)과 장민기 이사(버들농장 대표, 육계분과위원장)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표창은 축산진흥 유공자 57명에 대해 훈포장 2,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3, 농수산부장관표창 50명 등이 각각 선정 확정되었는데 신흥종 사장은 양계부문에 새마을훈장 노력장을, 장민기 사장은 농수산부장관 표창대상에 각각 선정되었다.

선물용 계란박스 인기

— 본회제작, 소비촉진 위해 —

본회가 지난해 말 제작해 공급하고 있는 계란소비촉진을 위한 선물용 계란박스(60개들이)가 양계장, 계란상점, 관련업계 등에서 정성의 선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년시 실비로 수요자에게 공급해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을 가득담아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었는데 계란 2판(60개)을 넣어 손쉽게

운반이 가능하고 모양이 좋아 가정방문시 옛날 훈훈한 시골인심을 새삼 느끼게 할 수 있어 절찬리에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양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양계인들로부터 계란선물 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

필요로 하는 분은 본회 총무부(752-3571~2)로 문의하면 된다.

규격 : 31cm × 29.5cm × 13.5cm

가격 : 박스 개당 220 원



동두천분회장에 최영식씨



(최영식 분회장)

동두천분회는 지난 1월 28일(토)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최영식, 부회장에 강현도, 총무에 송복근씨를 각각 선임하였다.